

Köln 大學校 人文大學 東亞 美術史學部 設置 五〇年史

俞 俊 英

I 머 리 말

一九七五년에 Köln 大學校 人文大學 美術史學科에서는 本科 東亞美術史學部 設置 五〇週年을 맞아 “Zur Kunstgeschichte Asiens”라고 記念 論文集을 發表하였다. (Zur Kunstgeschichte Asiens, Franz Steiner Verlag, Wiesbaden, 1977.) Köln 大學校 美術史學科 東亞美術史學部는 유럽을 통틀어 가장 오래된 東亞美術史 研究기관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一九二二년에 Wien 大學校에 처음으로 설치된) 오늘날 이 학과와 Köln 東亞美術박물관(Museum für Ostraisische Kunst)이 하고 있는 ‘大學과 박물관의 상충적인 共同연구 및 운영의 關係를 考察할 때, 독일에서 가장 핵심적 東亞美術史學의 근거지라 볼 수 있다. 특히 이 Köln 大學과 東亞美術박물관에는 오늘날 독일과 미국 등의 주요기관에서 일해온,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저명한 미술사학자 또는 中國學者들이 거쳐 갔거나 깊은 關係를 맺고 있다. 금년 十二月, 마침 Köln 東亞美術박물관은 二차대전 이후의 現임시건물에서 건물 신축과 더불어 개관을 맞아 佛 敎美術 국제 세미나가 있다.

다른 部門의 學門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뒤늦게 출발하여, 어느 정도 疏外당하고 있던 우리의 美術史學界에 요즘 活潑한 움직임이 보이

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필자는 이러한 유럽미술사학계의 歷史를 소개함으로써, 우리의 美術史學의 位置를 省察하고 우리의 進路를 생각해보는 뜻에서 위에 언급된 論文集에서 Ulrich Wiesner 氏의 Die Geschichte der Abteilung Asien)을 拔萃 번역하여 여기에 내놓는다. 本文의 註는 주변관계로 옮기지 않았다. 여기에 자주 나오는 독일대학의 여러가지 교수직급은 아직 우리나라의 직급용어로 번역이 불가능한 것들이 많으므로 그냥 「교수」라고만 번역한다. 위에는 論文集 末尾에는 특히 一九二四년 이후, Köln 대학에서의 東洋美術史 강의 내용과 一九二八年 이후 Habilitation 및 Dissertation들이 있어 관심있고 독자의 좋은 자료가 될 줄 믿는다.

II

가 Köln 大學校 人文大學 미술사학과 동아시아학부의 역사

Köln 市에서는 一九〇九년도 東亞細亞 박물관 건립과 더불어, 후에 다시 大學校로 재편성된 Köln 대학은 一三八八年 창립, 一七九八年 Kapoleon 전쟁 때 폐쇄, 一九一九년 재개교, 파란많은 대전을 거쳐 一九四五년부터 본격적 운영에 들어간다) 당시 商業專門學校(Handels-Hochschule)안에 동아세아 미술사에 대한 학과를 설치하려고 계획했었다. 이로써 Köln 市는 이 박물관의 소장품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의도를 알 수 있으며 이는 또한 당시 독일의 극동에 대한 輸出 증진에 관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했으며 이 상업학교에서 중국어와 일본어가 강의되고 있던 것도 그와 같은 뜻에서였다. 그러나 그 후에 역사가 말해주듯 동아세아 미술사학과는 후에 다시 대학으로 출발한 이 Köln 대학에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다. 초대 동아미술사학과 책임자로 가장 적격자였던 시립 동아미술박물관 초대 관장이던 Adolf Fischer 교수(一九一四년 작고하자 이러한 계획은 잠시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나 Adolf Fischer 교수는 초대 관장으로 一九〇九년부터 一九一三年까지

중요한 일부분에 의해서 소장품수집을 통해 그들의 Köln 박물관의 기초를 다진 공적자이다. Köln에서의 이루어진 이러한 동아시아 미술연구기관설치의 先驅的功績은 一九二二년 Wien 대학에서 그곳 미술사학과안에서 Josef Strzygowski 교수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서 獨語사용권에 있어서 '안타 전 유럽대학에서 맨 처음이던 동아시아 미술연구가 시작되었던' 이로서 소위 Wien 학파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중에서 그 후 Köln에서 활동한 三명의 인물만이 특별히 여기고 Arther Wachsbarger, Karl With 가 아니라 Alfred Salmony가 유명하다. A. Wachsbarger가 一九一四년 Strzygowski의 西域地方의 壁畫(Die Wandmalerei chinesisches Turkestans) 부분이라 박사학위를 얻었다. A. Wachsbarger가 이따한 당시에는 Köln 박물관 소장품 카탈로그 편찬을 행했었다. 다음에 그는 당시 Strzygowski의 동아시아 Karl With가 一九一八년의 「八세기 초 일본의 동아시아의 초기불교의 조각」이라 박사학위를 썼다. Karl With가 Hagen의 Karl Ernst Osthaus(本文註八참조)와 친한 사이로 一九一三년경 위의 카탈로그 편찬을 위하여 일본에 여행하였으며, 당시 독일 Folkwang-Museum에 유학중 소장품 구경행관을 맡고 있었다. 그 후 출정후 一九二一年경 Köln 박물관의 일과를 떠맡고 장민을 맡았었다. 一九二五年부터가 Köln 미술학교에서 강의를 했다. 一九二八년에 그가 Köln Kunstgewerbe Museum의 관장이 되었으며 一九三二년에 그 위의 같은 Köln 미술학교의 교장직을 겸직하기도 했다. Wien의 Strzygowski 교수의 셋째 아들 제카르 알프레드 Alfred Salmony이다.

그가 一九二〇년경 Bonn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같은 해에 Köln 박물관에서 보조연구원이 되어 일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一九二〇년대와 一九三〇년대 초기로서 Köln의 동양미술사학계의 활동은 일단 중지한다.

一九一九년 Köln 장영전문화학과가 다시 설치된 대학과의 편입되고 그 이듬해 一九二〇년경에 A. E. Brinckmann 교수에 의해 미술사학과가 Köln 대학교에 설립되었다. Brinckmann 교수는 당시 새로 개설된 미술

사학과에 유럽미술사 이외 先史시대와 동아시아 미술사를 실장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롭고 혁신적인 생각은 부분적으로만의 실현되었다. 一九三三年 Herbert Kühn 교수가 「유럽과 미국을 위주로 한 선사시대의 미술」이란 제목으로 Habilitation을 끝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미술사학과내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동아시아미술에 관해 아무런 해해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중에서도 맨 처음 시도했던 Salmony 교사의 동아시아미술사 연구교수로서의 취임기록과 Salmony의 당시 미술사학박사였지만 Brinckmann 교수의 개인적 관망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Karl With 교사의 Habilitation이 거의 전례 이루어지지 못했었다. 이렇게 해서 Köln 대학의 K. With와 Salmony 박사들 총칭이로서 저명한 이방면의 학자를 영입할 수 없게 되었고 수직과 소장품의 수집 기회도 잃고 말았다. 이 당시 Salmony 교수는 이 미국 제재이로 특히 프랑스와 미국에서 알려져 있었으며 그가 Carl Hentze와 一九二五年경 창립하여 발간하기 시작한 Atribus Asiae 가 부속대학의 Institute of Fine Arts의 중역기관이라 부속적 권유를 받게 된다. 그러나 Salmony와 With 교수는 Köln 대학에서 그 후 야간부의 일반과 양학부 강좌를 맡게 되었다. 즉 一九二四年 겨울학기부터 一九三三年까지 주로 Salmony 교수의 의해 동아시아미술의 강의되었었으며 다만 그의 장인 소년 친구와 미국여행중에 의해 때때로 중단되었었다.

가 一九四五년까지의 獨逸語 使用 圈內 大學들에서의 東亞미술사학의 역사

그러나 위의 기간중에 Köln에서 있었던 여러가지의 東亞미술연구에 대한 노력은 전혀 성과없는 것이 아니었다. 一九一三年 Strzygowski 교수는 「比較美術연구안에서의 東亞細亞」라는 논문속에서 「美術史」 다만 유럽미술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점을 비판하면서 Berlin 박물관의 十九세기말기로부터 二十세기초까지의 대대적으로 사들인 아시아미술소장품

의 무전사한 상태에 대해 언급했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오늘날의 미술사가들이 비전문가적인 위협성에 빠지지 않고 팽창되어가는 자기 분야의 지역의 미술에 대한 연구가 증가되어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희망적으로 대다보았다. 그러나 Strzygowski 교수에게 더 중요한 문제는 위에 언급된 것만이 아니고 미술의 비교연구였다. 그리고 이것의 方法上 比較言語學의 방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결국 美術 비교 연구가들에게 필연적인 것이 첫째 史的 方法的에 의한 미술사가 전체조건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미술비교연구는 명화 장소에 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장소와 때에 관한)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一九二二년의 Strzygowski 교수와 Wien 대학의 미술사학과에 동아미 술사학부를 설치하였이며 그 중에서 그의 첫째제자들인 Wachsmann, With 그리고 Salmony 가 뒤와 Köln 이따가서 거기서 일하게 되었다. 이 동아미술사학과가 비록 이 방면의 전문가에 의해서 운영되지는 못했지만 동아미술전문가들을 배출시킬수가 있었으므로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한 셈이다. 예로 Alfred Salmony 가 후계 뉴욕대학의 Fine Arts Institute 에서 후배양성에 상당한 자부였으며 Stella Kramrisch 가 이미 一九二四 에 인도미술에 관한 장의를 하기 위하여 Calcutta 에 갔다.

Stella Kramrisch 가 五〇년까지 Calcutta 대학에 재직하면서 인도미 술과를 운영하였이며 그후 Philadelphia 에 갔다. 여기에 천거해서 말해 두어야 할 것이 Strzygowski 교수에 의해서 이슬람미술사의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량 필연한 동아미술과 인도미술의 관한 전문학자 양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Strzygowski 교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던 미술비교학과 아직 실현되지 못한 셈이다. 독일내에 동아미술사가 처음으로 강의된 것은 특기할만하게도 종합대학이 아니고 工 科大學이었다.

一九二五년 저술한 그의 Ernst Boerschmann 〇 Berlin Charlottenburg

의 공과대학에서 동아전축에 관한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므로 Boerse hmann 교수의 오랜 연구와 중국에서 직접 체험한 학문적 조사가 한 단 과대학안에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一九二六년의 Ludwig Bachhofer 가 뮌헨대학에서 아세아미술사에 관한 논문이라 Habilitation 을 끝냈다. 그가 이미 一九〇七年부터 一九三三년 까지 München Völkerkunde-museum 에 관장되었던 Lucian Scharman 에게 강의한 바 있다. 그가 一九三五년의 Chicago 대학으로 초빙되어 갔 다. Bachhofer 교수의 München 시절의 제자가 이미 一九三四年 Berlin 의 Kummel 교수 밑에서 연구한 바 있다가 Marx Loehr 〇이다. 그가 一九三六 년 박사학위를 받고 一九四〇년 München의 Völkerkunde museum 에 연구원이 되었으며 그가 중국에서 돌아온 이후 一九四九년에서 一九五 一年까지 역시 이곳에 있었다.

Loehr 교수는 二차대전 이후 뮌헨대학에서 강의를 하였으며 Roger Goepfer 교수가 그의 밑에서 연구를 했다. 一九五一년의 Loehr 교수 가 뮌헨의 Völkerkunde museum 의 관장직위에 초빙되고 동시에 Michigan 대학 교수로 불리었다. 그가 Michiga 대학이러가기로 결정하고 一九六〇 년까지 거기서 활동했으며 그후 Harvard 대학으로 갔다. 뮌헨대학의 동 아미술사교육의 주축인 Völkerkundemuseum 이 말아 왔으며 이렇게 해서 초기에 Strzygowski 교수가 목격한 일반미술사에서 동아미술사를 두 립시키려던 의도는 人類學이란 학문분야를 거쳐 이루어진 셈이다.

Berlin 이나 Köln 대학의 동아미술사의 연구도 역시 뮌헨과 같이 그곳 박물관에 의해 주도되었었다. 一九〇六년의 Wilhelm von Bode 가 몇 사람 밑의 노력에 의해 Otto Kummel 교수와 Berlin 국립박물관 관장 미술부를 창립하기 위해 초빙되었었다. 이 Berlin 국립박물관의 소장품들 은 지금까지의 광범위한 인류학적 미술품들과는 달리 동아세아 미술품들 위주였었다.

一九二八년 Kummel 박사가 Berlin 대학의 교수로 초빙되고 동아 미술사 강의를 맡게 되었다. 그가 一九三三년에 재편 된 Courtauld

Institute of Art 에서 동아시아 미술사 강의에 초청되었지만 같은 해에 Kummel 교수 밑에서 Ku Teng 교수가 중국 미술사론이라 박사학위를 받았고 Werner Speiser 가 「清朝의 畫家 唐寅」이라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거의 같은 무렵에 Viktoria Contag 와 Kummel 교수 밑에서 박사과정을 끝냈으며 一九四〇년에는 Ernst Aschwin, Rose Hempel 이 역시 박사학위를 받았다.

Berlin (대학과 박물관을 동시에 운영함)에 있어서 박사 과목 제복들 중에서도 대개 회화와 中國學방면을 우선적으로 취급한 경향을 볼 수 있다. Herbert Fronke 처가 Otto Kummel 교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가 유럽대학에서 누구보다 동아시아 미술사연구를 활발시키려고 노력한 분이며 그때까지 거기서나 잘 훈련된 아마추어정황에서 이 학문을 배내고자 애쓴 사람이다」

독일에 있어서의 동아시아 미술사 연구가 一九四五년 이후 전면 새로운 면모를 갖는다. 一九三三년 Alfred Salmony 교수와 불란서로 망명하고 후에 거기서 다시 미국으로 건너간다. Ludwig Bachhofer 가 一九三五年 Chicago 대학의 미술사교수가 되었다. 一九三三年부터 이미 중국의 부더 Fujen 대학에서 과편을 잡고 있었다.

그가 一九四九年의 Honolulu Academy of Arts 의 연구원이 되었다. 一九四一년에서 一九四五년까지의 북경의 華獨연구소장이었던 Max Loehr 가 一九四九年 문헌으로 다시 돌아왔으나 一九五一년에 이미 Michigan 대학이라 떠나게 된다. 一차대전후 Aschwin Lippe 와 한센부이로 건너갔다.

실제로 現世紀의 전환기에 독일과 오지리에서 이루어진 동아시아 미술연구에 대한 노력은 독일나치정권의 영향으로 국제화 또는 미국화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독일내의 동아시아 미술연구가 국제적 위치에서 지방적이라고 할 위치로 전락한 셈이다. 이러한 상태가 하나의 중요한 이

방면의 專門誌와 발간되었다. 一九二二년경 Ostrasiatische Zeitschrift 가 Otto Kummel 와 William Cohn 의 해 창간되었다. William Cohn 은 一九三八년까지의 잡지의 발행인이로 있었으며 一九三九년에 영구이로 망명하게 된다. 이 잡지가 이렇게 해서 一九四三년에 끝을 맺게 된다.

一九四八년에 개간 Oriental Art 지가 창간되었는데 이 誌의 發行 人 William Cohn 이의 정무원과 같은 Ostrasiatische Zeitschrift의 발행인이로 Oriental Art 와 Ostrasiatische Zeitschrift 의 체계를 맺은 것이었다. 우리가 Oriental Art 가 이 문자체가 O.Z.와 달리 개간인의 편집에 관한 전문지라기 전에서 후발격이라 볼 수 있다. Aribus Asiae 가 Carl Henze 와 Alfred Salmony 의 해 一九二五년경 창간되었다. A. A. 가 그 후 정무원에서 발행되었으며 一九五八년 Alfred Salmony 교수의 사망이라 Alexander Soper 가 편집장이로 임하기 시작한다.

다 一九四一년 이후의 Köln 대학의 人文대학미술사학과 博아디플로마 학과의 역사

一九三三年 Berlin 의 Kummel 교수 아래서 박사과정을 마친 Werner Speiser 가 一九三四년 Köln 동아시아 미술박물관이라 해서 당시 연구원이 되었으며 一九四四年경 Köln 대학에서 Habilitation 을 마치고 교수가 되었다. 一九四一년경 Köln 대학에서 부영대학에서 첫 번째 정역의 동아시아 미술세미나가 개설되었고 당시 Köln 동아시아 미술박물관의 연구원이었던 Werner Speiser 박사가 박물관장을 맡게 되어 있었다. 이 세미나의 첫 번째 소장이 되었다. 이 세미나의 Köln 대학 미술사학과로부터의 自主性이 명확히 였고 一九五〇년 정문화기부터 비로소 동아시아 미술사학부라고 불리게 된다. 이렇게 해서 독일대학내에 처음으로 강의계획담당자의 계획에 구애받지 않거나 학과가 설치되었으면 Köln 대학이 이 연구기관을 동아시아 미술박물관이라 하고 有用하게 운영하도록 기탁한 셈이다. (여기서 부연해 둘 것이 Köln 대학과 박물관이 Nordrhein-Westfalen 州에 속한 市가

기관이란 것임(역자주) 그러나 실제상의 이 체미나 운영상의 Speiser 교수
수가 군에 정집단하므로서 동야미술교육은 힘있게 되고 말았다.

一九四八년에 Speiser 교수는 포로생활에서 풀리어 돌아오고 一九四九
년 여름학기부터 다시 장의를 하게 되었으며 一九五四年에 교수로(Prof.
prof.) 임명되었다. 一九五六년부터 Speiser 교수는 Bonn 대학에서 장의
를 맡게 되었다. 그가 또 Herbert Franke 교수가 Köln에서 가르치는
동안 그와 같이 증우학제미나에서 공학으로 교수하였다.

Speiser 교수는 一九六五年三月一日에 아직도 五七세라는 활동할나이
에 작고했다. 그래서 Köln 대학에서의 강의를 一九六六年도 겨울학기부
터 一九六八년도 여름학기까지 Aachen 공과대학의 Eleanor von Erdberg
교수에 의해 대행되었다. 一九六六年三月一日부터 Köln 동야미술 박물관
관의 관장 취임이러고 Roger Goepfer 박사가 하게 되었으며 一九六七
년 여름학기부터 Köln 대학에서의 미술사 강의도 맡게 되었다.

一九七二年 Roger Goepfer 교수는 이 대학에서 「孫適庭의 書譜」연구
로 Habilitation 을 끝냈으며 一九七三年에 Auper Ordentliche Prof. 에
승진했다. 一九七二年에는 Goepfer 교수는 Zürich 대학에도 출장했으며
一九七六년에는 Copenhagen 대학에서도 강의한바 있다. 그는 Amster
dam 대학에 초빙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 一九五八년에 Köln
대학과 인문대학 미술사학과장인 Heinz Ladendorf 교수가 되었으며 그
는 특히 이 미술사학과 내의 동야미술사학부 발전에 공이 매우 크다.

동야미술사학부는 Speiser 교수가 작고한 후 三一一八권의 그의 장서
를 科圖書로 받아들이고 도서목록집까지 내놓았다. Speiser 교수 재직당
시의 노력으로 동야미술사학부는 동야지방과 유럽지역의 서적은 물론
이슬람미술의 관한 책들과 인도, Birma, Thailand 미술에 관한 책들도
갖추게 되었다. Ernst Boerschmann 교수의 장서의 일부도 이학부 도서
관에 들어와 아세아미술연구의 기본적 도서를 갖추게 되었다.

Boerschmann 교수의 장서의 일부가 특히 중국 건축과 拓本들이 귀중
한 자료이다. 一九七三年 동야미술사학부가 Weyertal 에 있고 Kerpenner

街三〇번지의 독립된 연구실들을 얻어 옮기게 되었다. Köln 대학 미술
사학과장 Heinz Ladendorf 교수는 미술사학을 유럽위주로만 하지 않는
학자로 비교미술사학적 방법의 의하여 미술사학을 유럽 밖으로 확대시
키는 것을 주장해왔으며 이러한 그의 노력으로 동야미술사학부의 Köln
대학안에서의 정규학과로서의 위치가 굳어졌다. Köln 대학에서 아세아
미술교육은 동야미술박물관의 Salmony 교수에 의해 一九二四年부터 시
작되었다. 이러한 박물관과 대학의 밀접한 관계가 Berlin, München,
Leipzig 에도 있었다.

Köln 동야미술 박물관은 연방정부의 과학과 연구성에 의해 미술박물관
관으로서는 독일에서 맨처음으로 연구기관이란 인정을 받았다. 이 박물관
관의 도서관은 특히 동야미술연구의 핵심기관이라 불리어질 수 있다.

라 서양 미술사와 동야 미술사학의 관계

우리가 Udo Kultermann 의 「미술사의 역사」(Wien, Dusseldorf, 1966)
에서 이 책의 저자가 Horst W. Janson 氏의 「世界의 미술사」중의 유럽
일면도적인 미술사관의 반박하는 다음과 같은 글을 본다.

「Janson 氏가 Burckhardt 이후의 이태리 르네상스를 과도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있다. 그의 五〇〇면에 달하는 이 책의 내용인 거의 一〇〇面
이 르네상스를 취급하고 있으며 거기에 반해 인도 미술전반과 동야세아
그리고 고대 아메리카는 「東과 西의 만남」이라는 제목 아래 겨우 八面
만을 취급하고 있다. 우리는 Janson 氏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냐하면 그는 다음과 같은 구실로 그의 주장을 정당화 시키려고 하고 있
기 때문이다. 즉, 三개의 큰 지역 인도, 동야세아, 고대 아메리카를 제
외했는데 이는 그들의 조형적 전통이 오늘날 살아있지 않고 또 서구 세
계에 전연 깊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문제의 시발점으로 돌아와서 아세아 미술을 다루고 있는
서구의 미술사학들의 영향이 「미술사의 역사」의 저자(Kultermann)에게
얼마나 미치고 있는가 물어본다면, 전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대

답할 수 있다. Kuttermann의 아세아의 대한 배려는 오히려 Janson의 五〇〇의八의 비율보다 더 내려가기 때문이다. 이 저서의 주장대로 한다면 서구 이외의 미술과 맞서본 사람들은 미술사가들이 아니고 큐비스트들이나 Surrealist들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위에 언급된 저서속에서 表明된 아세아 미술사에 관한 관심도가 오늘날 이 학문분야의 증상을 어느정도 바르지 못하게 진단하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생각나는것은 一九一三년에 Strykowski 교수와 이와 비슷한 당시 학계의 상태를 묘사한 것이 생각난다. 一九一七년에 William Coh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독일내 대학에서 행하여지는 이태리 미술에 관한 강의나 연습같은것이 얼마나 많은가 알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많은 강의중의 일부를 대신하여 예술적으로 특히 뛰어난고 장래 정치적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큰 가능성을 가진 이 세상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저종의 미술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정말 타당한 일일것이다」

그러나 지구 인구의 半을 차지한다는 다른종의 미술이, 이러한 양적 이유만을 가지고는 아직 거기에 관심을 두기에 충분한 구실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연구라는 것은, 항상 선택적이며 언제나 수없이 쌓인 문제들 중에서 어느것만 선택되고 또 그 많은 자료중에서 아주 적은 부분의 흥미있는 것만 가려진다. 즉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들이 다루어지며 특히 개인이나 어떤 단체의 이해가 크게 작용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서구의 미술사학은 하나의 일반예술학으로서 아세아 미술에 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즉 서구의 미술사학에는 아직 아세아 미술분야와의 연관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연관성이라는 것은 그것을 볼출하는 사람에게만이 보여진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세아 미술과의 연관성이라는 문제가 오늘날 우리 학계의, 즉 서구 미술사학계의 상태를 의심해 볼만한 문제로 대두된다.

위에서 유럽 대학내의 학문적 상태를 한탄한 William Cohn은 다음

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들의 박물관들에서는 아세아에 대한 관심도가 예술학계보다는 대체로 폭넓고 관대하다.」

이러한 비판은 역시 대학내의 융통성 없는 학과실치에 비하면 아세아 미술에 대한 공공의 이해가 비교적 쉽게 반영되는 곳이 박물관이라는 오늘날의 상황에도 들어맞는 것 같다.

(全南大學校助教授)